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사)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장 송장희

# 포천국악 발전위해 市民의 관심 필요

(사)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송장희(51·사진) 지부장이 포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여년전이다. 당시 강연회 사회복지과장의 군민의 날 행사에 초대되어 공연을 시작한 것이 인연이 되어 농업기술센터 강의, 양로원·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공연을 해왔다.

2006년6월1일 임기 4년의 지부장으로 취임한 송 지부장은 젊고 유능한 국악인들로 '예술단'을 창단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송 지부장은 현재 포천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영중면주민자치센터 국악반, 양주문화원 국악반, 의정부문화원 국악반, 성동2리 포천전수관, 의정부노인복지회관, 동두천국악협회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지부장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이었던 안비취 선생님의 제자 전숙희 선생 사사,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1호 임정란 선생 사사를 받고 있다.

송 지부장은 평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성공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누군가 나를 시키 할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직 내가 하는 일 밖에 모른다면 포천국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먼저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송 지부장의 생활태도가 광범한 가정주부에서 소리꾼으로 변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송 지부장은 특히 한번 인연이 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제자들이 가끔 이야기한다. 선생님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사람으로 감싸주면 서로가 편안하고 좋다.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직업을 버리고 소리가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 온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도 없다.

다만 아쉬운 열심히 밤낮으로 준비하여 마련한 무대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걸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 경기민요 공연을 알리면서 공연장에 찾아와서 같이 소리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송 지부장은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락을 보여주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교

까지 우리국악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국악반을 신설하여 국악을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1주일에 1회라도 국악반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대중가요는 방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국악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 이것은 우리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하고 전수해야 한다.

그래서 송 지부장은 10여명으로 예술단을 구성해 학교를 비롯해 노인정,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은 물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달려가서 우리소리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래서 포천시민들의 포천의 국악을 알고 경기민요를 부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송 지부장은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 무희와 코러스 길들의 것이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경기민요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다.

정기공연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각급 기관장이 참석해 의식행사만 끝나면 모두 퇴장하고 정작



중요한 공연은 관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기예총 회장 선출에 대해 송 지부장은 포천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천예총을 구성하고 있는 5개 지부의 장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부장들간의 만남이 너무 부족해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실정이다.

포천메나리, 풀피리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포천에 사는 것만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평생 몸 바쳐 예술을 하고 있는 문화재 선생님이 두 분씩이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의 고장으로 더욱 문화예술이 풍부하고 고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예총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53

#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원진이 보성대관(寶城大判)에 임명되었다. 그러자 어머니 입씨는 부임하는 날편을 따라가면서 길재를 외가에 맡겼다. 어린 나이에 외가에 맡겨진 길재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하루는 사냥터에서 놀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다.



리효종 포천시사 대표

지리아, 지리아, 너도 어머니를 잃었느냐 나 또한 어머니를 잃었다네 너를 삶아먹을 줄 알지만 나와 같이 너도 어머니를 잃었으니 차마 너를 놓아줄 수밖에 없구나.

그는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책 상자를 등에 짊어지고 스승을 찾아 다녔다. 열 살 때 절에 들어가 글을 배우고 열 여덟 살 때는 정몽주 문하에서 공부하여 우왕 12년(1386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아버지 원진은 개경에서 벼슬을 하면서 노씨라는 여자에게 재장가를 들었다. 이에 길재의 어머니가 낱마다 아버지를 원망하였다. 어머니의 원망을 들은 길재가 조용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비록 잃지 않은 일을 한다 해도 아내가 지어비에 대하여,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그 행동이 그러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륜에 벗어나는 것은 비록 성인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옮겨 처신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멀리하고 새 부인과 살고 있었다. 길재는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날, 길재는 짐을 꾸리고는 어머니에게 하직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께 오랫동안 문안드리지 못했으니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스승 박문을 따라 아버지가 있는 개경으로 향했다. 새 어머니 노씨는 길재를 험하게 대했으나 그는 친어머니를 대하듯 극진히 효성을 다하였다. 마침내 노씨도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친사처럼 대하였다.

공양왕 2년(1300)에 길재는 고려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 어머니가 늙었다는 이유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향했다. 그 뒤 2년 만에 고려 왕조는 멸망했다.

처음 이방원(조선조 태종)이 평민이었을 때 길재는 그와 같은 마음에 살면서 서로 왕래하며 함께 책을 읽었다. 조선 정종 2년, 방원이 동궁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는 당시 뜻 있는 선비를 구하다가 길재를 생각해내고는 아랫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오라고 했다.

“길재는 강직한 선비다. 내가 일찍이 함께 공부했는데 못 본지가 오래되었구나.”

길재는 몇 차례 거절하다가 마

침내 옛 친구였던 방원을 만나보기로 했다. 길재가 말을 타고 도성에 이르자 방원은 그를 봉상박사(奉常博士)에 임명하였다.

오래 벼슬을 받으면 반드시 대궐에 나아가 임금께 사은숙배(謝恩肅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길재는 임금께 감사의 예를 올리지 않고 방원에게 편지를 보내 벼슬살이를 할 뜻이 없음을 알렸다.

“이 몸이 옛날 저하(邸下:세자)와 더불어 태화관에서 함께 시경을 읽었는데 지금 저를 부르시는 것은 옛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려에서 벼슬을 마치고 곧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 데 지금 옛정을 생각하여 이 몸을 부르시니 제가 친구로서 저하를 뵈옵고자 왔을 뿐이고, 벼슬하는 것은 저의 뜻이 아닙니다.”

편지를 읽은 방원은 사람을 시켜 길재를 태웠다.

“그대를 부른 것은 나지만 벼슬을 내린 것은 임금입니다. 그러나 임금께 사직을 올리는 것이 옳소.”

그러자 길재는 곧 물러나 임금께 글을 올렸다.

“신은 본디 재주가 없는 몸으로 과분하게도 고려의 은혜를 입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살았습니다. 신이 듣건대 여자는 두 지어비를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오랫동안 문안드리지 못했으니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정중은 하는 수 없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부역을 면제시켜주고 발을 하사했다. 그러나 길재는 하사 받은 발에 대나무를 심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망해버린 옛 도읍지를 돌아보고 시조를 한 수 지었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四馬)로 돌아오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한데 인걸(人傑)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향에 돌아온 후 고을의 군수 이양(李揚)이 찾아왔다. 그런데 막상 길재의 집에 가보니 사는 곳이 외지고 눈발도 척박하였다. 그 리하여 군수는 길재의 발을 읍곡동에 있는 기름진 논밭으로 바꾸

어 주었다. 그러자 길재가 군수에게 말했다.

“무릇 물건이 아무리 풍족하다 한들 그 값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전답 중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었다.

세종 원년에 그는 병이 위독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때 길재의 아들 사순이 도성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길재의 병이 위독해지자 부인 신씨가 급히 아들 사순을 불렀다. 그러자 길재는 손을 내저으며 부인에게 말했다.

“임금과 아버지는 같은 몸이오, 내 아들은 이미 임금에게 갔으니 내 부고(訃告)를 들은 뒤에 오도록 하시오.” 그러고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그때 나이 67세였다.

길재(吉再)와 여말삼은(麗末三隱)

1353년(공민왕2) ~ 1419년(세종1)

본관은 해평(海平)이며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아은(杏隱) 또는 금오산인(金烏山人)이다.

아버지는 지금주사(知樞州事) 원진(元進)이며, 어머니는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추증된 김희적(金希迪)의 딸이다.

11세때 처음으로 방산(滄山) 도리사(桃李寺)에서 글을 배웠고, 18세때는 상산사목(商山司牧) 박분(朴賁) 밑에서 성리학을 배웠다. 아버지를 버려 개경에 갔을 때 이색, 정몽주, 권근 등 여러 선생의 문하를 오가며 학문을 익혔다. 1374년(공민왕23) 국자감에 들어가 생원시에 합격하고, 1383년(우왕9)에는 사마감시(司馬監試)에 합격하였다. 1386년 진사시에 급제하여 그해 가을 청주목사(淸州牧司)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때 이방원과 한 마이를 살면서 우정이 두터웠다.

1388년 성균박사(成均博士)로 승진하였는데 태학(太學)의 생도와 양반 자제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어 배우기를 청하였다. 1389년(창왕1) 문하주서(門下注書)가 되었으나,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 벼슬을 버린 뒤 고향인 선산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를 흠모하는 학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후학 교육에만 힘쓰다가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문하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학들은 김충직(金宗直), 김광필(金玄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등으로 면면히 이어졌다. 저서로 『야은집』 등이 있고, 언행록인 『야은인걸(人傑)은 간데 없네 언행습유록(言隱言行拾遺錄)』이 전한다. 시호는 충절(忠節)이다.

그는 고려의 삼은(三隱) 중 한 사람으로 불린다. 여말 삼은은 목은(牧隱) 이색, 포은(圃隱) 정몽주, 아은(杏隱) 길재를 말한다. 세 사람의 호(號)에 각각 '은(隱)' 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은 길재 대신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을 넣기도 한다.

## 뮤지컬 이야기



문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그때 그 쇼를 아십니까?〉 몇 년 전에 60-70년대식 버라이어티 쇼가 서울에서 공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지방순회 공연까지 매진사례를 기록한 적이 있었다. 은방울 재배를 비롯해 흘러간 가수들이 '홍도야 우지마라', '애수의 소아곡', '마포종점' 등을 들려주었고 송해, 배연정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들도 출연하여 노래 막간에 만담과 장기자랑 등을 보여주었다. 효도 상품으로 기획된 이 쇼는 한국에서 60년대 말까지 인기 있었던 악극단 공연을 재현한 것이었다.

악극의 형식은 이미 193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악극단은 해방 전후에 생겨나서 가수들의 노래를 주축으로 번사나 빼에로 같은 배우들의 짧은 코미디나 만담 혹은 장기자랑 등을 엮

## 보드빌(Vaudeville), 레뷰(Revue) 그리고 악극단

어 1960년대 말까지 대중의 인기를 모았다. 이 공연도 노래와 춤 그리고 코미디 등이 서로 연관 없이 나열되어 진행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서양적 개념의 보드빌(Vaudeville)이나 레뷰(Revue)와 매우 유사하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대중 오락극은 정극인 멜로드라마(Melodrama)와 뮤지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보드빌과 레뷰였다. 보드빌과 레뷰는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 흑인 노예들의 춤을 풍자한 대규모 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노래와 춤 그리고 시사 풍자적이며 해학적인 촌극 등을 엮었다는 점에서 서로가 매우 유사하지만 본격적인 뮤지컬과는 달리 줄거리가 없으며 단지 레뷰는 주제가 있다는 점에서 주제가 없는 보드빌과 구별되어진다. (최근 대륙에서는 공연되고 있는 미국 오프브로드웨이 뮤지컬 <아이 러브 유 (원제: I Love You, You're Perfect, Now Change)>도 뮤지컬 레뷰 형식이다) 발레스크(Burlesque)는 보드빌(영국에서는

버라이어티 쇼로 지칭) 등을 공연할 때 막간에 끼워 넣는 해학 촌극으로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에 격이 낮은 통속적인 희극과 무희와 코러스 길들의 쇼를 합친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스타립쇼로 변질되었다.

20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인기를 모았던 보드빌과 레뷰는 1927년 최초의 유성영화인 뮤지컬 <재즈 싱어(Jazz Singer)>를 기점으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더욱이 경제공황이 시작되면서 많은 음악가와 배우들이 브로드웨이를 떠나 경제적으로 더 풍족했던 할리우드로 진출하게 되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텔 레비전이 급속히 보급되자 클럽이나 카바레 등에서만 일부 이들의 공연양식을 차용할 뿐 그 명맥이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만만 들어도 웃음을 머금게 했던 구봉서, '시골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로 유명했던 서영춘 그리고 배삼룡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대부분이 50년대부터 악극단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화에서 성공을 거두고 1960년대 초반 텔레비전 방송극 개극으로 코미디언실 1세대로 자리 잡았다. 이후 악극단은 1960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뮤지컬에 밀려 급속히 사라져 갔다.

본격적인 뮤지컬이 시작되기 전에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전파된 또 다른 공연 형식 중에 하나가 바로 <뮤지컬(Music Hall)>이다. 대부분의 무성영화 희극배우들이 이곳을 거쳐 갔는데 보드빌로 알려지기 시작한 버스터 키톤(Buster Keaton)과 함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도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일 것이다. 뮤지컬은 원래 노래와 춤 등의 쇼를 즐기는 장소의 개념이지만 아크로바틱(곡예)과 마술 등이 첨가된 하나의 커다란 공연형식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유행했던 멜로드라마(Melodrama)와 함께 뮤지컬은 거대한 전문적인 공연장을 갖추었는데 역시 영화의 출연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레코드의 발매와 유성영화의 시작은 뮤지컬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87)

### 승경도(陞卿圖) 놀이

옛날 양반가에서 남자들이 벼슬살이 하는 경로를 웃놀이 형식으로 하는데 이를 「승경도」놀이 라고 하였다.

정초(正初)소년들이 부형(父兄)들과 함께 하는 놀이인데 「승경도」에는 유학(어린학생 : 幼學)에서부터 봉조하(奉朝賀)에 이르기까지 관직명(官職名)이 질서있게 적혀 있다. 누가 먼저 「영의정」에 이르고 「봉조하」를 차지하고 임금께 「계장(機杖)」을 받고 귀향(歸鄕)하느냐가 내기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웃놀이 말판 대신 「승경도」를 사용 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모나 웃을 쳐서 숫자가 많

아야 고속 승진하여 중앙의 좋은 벼슬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도나 개 같은 낮은 승진수를 웃으로 놀아서 일개되면 지방직이나 변방으로 쫓겨 다니게 되기도 하고 파직이 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기도 한다. 옛날에는 한 번 지방 수령직이나 변방 무관직에 이르면 시집으로 중앙 현직(縣職)에 오르지 못 하는 불운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험난한 벼슬 길이 승경도 놀이 판에서 웃놀이 점수로 오르라 내리락하여 아슬 아슬한 모미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다. 「승경도」판에는 조선조 관제(官制)가 빠짐 없이 적혀 있어 조선조 관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반 가족들이 벼슬하는 길만히 오직 같 길이라는 벼슬 일 번도의 세도와 관계(勢道 賄賂)를 너무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점에서 승경도 놀이를 무섭게 비관하는 학자들도 있다. 세검도 면적 받고 조상의 음력으로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벼슬길에 올라 승승장구 평생을 좋은 웃, 좋은 음식만 먹고 권위와 위신을 세우고 싶었던 양반 자제들의 사병방 놀이가 「승경도」놀이였으니 비판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학자들이 있다. 딸 유희라 일하는 즐거움, 일한 뒤 열매(대가)를 얻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민주

주의 근로대중의 사회(勤勞大衆之社會)를 지향(志向)하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합당치 않은 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심심풀이로 벼슬길에 나아가 목민관(牧民官)의 도리를 다 하지 않고 불성실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변방으로 좌천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조선시대 관직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관직은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이며 그 직책에서 열심히 책무를 다하면 어떤 관직에 승진할 수도 있다는 흥미위주의 놀이를 이해하면 「승경도」놀이도 과히 나쁜 질시의 양반가 놀이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필자도 정초 우리의 전통 놀이를 소개하고 가정의 심심파적으 로 웃놀이 말판 「승경도」놀이를 즐겨 온바 있다.

내 고향 양반가의 후예들이 「승경도」놀이를 즐기는 가정이 있어 왔으나 지금은 전래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초대 漢詩

### 大雪即景吟 (대설즉경음)

霧霧暮雪陸均平 百玉景光似畫明 (본분모설육균평 백옥경광사주명) 분분히 내리는 저, 땅위에 눈이 고르게 내렸고 백옥처럼 희고, 풍경이 낮과 같이 밝구나.

淨土風嘉尋故舊 青山雲華感餘情 (정도풍가심고구 청산영화감여정) 정도의풍치는 아름다워 옛친구 찾았는데 청산의 눈꽃이 화려하니 여정을 느끼는구나.

咸吟詩賦瓊懷溢 豪飲香茶浩氣清 (함음시부경회일 호음향다호기청) 함께 시부를 읊으니 경희가 넘치고 향다를 홀음 하니 호기가 청청해지느니라.

相勸酒杯歌舞續 登坡天向吼歡聲 (상권주배가무속 등파천향후환성) 술잔을 서로 권하니 가무가 이어지고 언덕에 울러 하늘을 향하여 환성을 부르짖는다.



박동애 전 영복중교장